

현안과 과제

| 이집트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파급 영향

Executive Summary

□ 이집트 사태의 확산과 경제적 파급 영향

■ 최근 이집트 사태의 현황과 배경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자극받아 발생한 이집트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결국 18일만인 2월 12일, 무바라크를 30년 독재의 권좌에서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이집트는 무바라크의 퇴진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으며, 권한을 위임받은 군 최고위원회가 향후 이집트의 민주화와 권력 이양 과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 이집트 사태의 전개 전망

향후 이집트 사태는 '점진적 권력 이양'으로 가닥이 잡혀나갈 것이지만,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거나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전망되고 있다.

- ① **점진적 권력 이양** :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와 민주화 세력이 합의에 기초하여 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평화적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새로운 갈등 및 혼란** : 권력 이양을 두고 계파간 새로운 충돌이 발생하여 평화적 권력 이양에 실패할 경우, 이집트 정국이 또 다시 큰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 ③ **군부 쿠데타** : 권력 이양이 무산되고 이집트 사태가 혼란에 빠져들 경우,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집트 사태의 파급 영향

(중동 정세에 파급 영향) 이번 이집트 민주화 시위는 다른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에 영향을 줄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알제리나 예멘 등의 다른 독재국가에서도 민주화 도미노 현상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도미노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 오던 사우디 등의 왕정 국가(주요 산유국 틀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및 국내 경제에 파급 영향) 만약 주요 산유국들로 정정불안 사태가 확산된다면, 국제 유가는 11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 4차 오일쇼크의 발생도 우려된다.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할 경우, 실질 가격으로 환산하면 98.4달러로서 2차 오일쇼크 시기의 77.달러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적으로는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특히 건설업 부문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對중동 수출액은 2010년 기준으로 283.억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6.1%를 차지한다. 특히, 해외 건설수주액 가운데 중동 지역이 무려 73%(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중동리스크 확산으로 인한 건설분야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 또한, 중동 지역 리스크 확대에 의한 국내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분은 약 1.26%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유가가 110달러에 이를 경우, 2010년 국제 유가 대비 약 30%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약 1.26%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 대응 방안

첫째, 중동 리스크에 따르는 4차 오일쇼크에 대비하여 비상 대책 마련과 석유 비축 규모 증대 및 에너지 공급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절약 등 비용절감 노력 등을 통해 에너지난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중동 지역 경기 위축에 따르는 한국 수출 시장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I. 최근 이집트 사태의 현황과 배경

○ (사태 추이) 이집트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해야했으며, 이집트 사회는 점차 안정을 되찾는 모습

- 이집트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도 즉각 퇴진을 거부해 온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태 18일만인 2월 11일에 해야 성명을 발표
-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 시민들이 1월 25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시작하면서 사태 악화
- 이집트 정부는 무바라크 대통령의 9월 대선 불출마, 집권당 지도부 퇴진 등 잇따른 양보책들을 제시하고, 개헌위원회 및 정치개혁 이행 감독위원회 설립을 승인하면서 일단 진정 국면에 돌입
- 그러나 무바라크 대통령이 시민들의 퇴임 요구에도 즉각 사임을 거부하면서 시민들의 시위는 다시 격화
- 2월 12일 타흐리르 광장을 비롯해 카이로 시내에 몰려든 100만명의 시위로 무바라크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고, 이집트 군에 권력을 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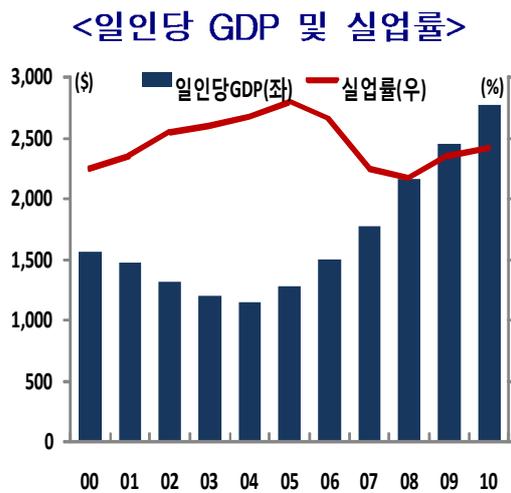
< 이집트 사태 일지 >

날짜	사건 내용
1월 15~18일	- 튀니지 벤 알리 대통령 하야, 사우디로 망명 - 튀니지의 영향으로 이집트에서 3명 분신
1월 25일	-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및 정치 경제 개혁 요구 대규모 시위 시작 - 시위대 3명, 경찰 1명 사망
1월 27일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IAEA 사무총장) 귀국 - 미국 백악관, 이집트 정부에 정치 개혁 촉구 - 야권인사 20여명 검거, 인터넷 전면 통제
1월 29~31일	- 무바라크 대통령 '내각 해산, 정치개혁' TV 연설 발표 - 군부-부통령, 무바라크의 하야 요구
2월 2일	- 반정부 시위대 100만명 행진 -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간 유혈 충돌
2월 6일	- 이집트 정부, 야권과 협상 - 비상사태법 폐지, 개헌검토위원회 구성 등 합의
2월 8일	- 최대 규모의 시위대 운집, 수에즈운하 노동자 파업 - 이집트 정부, 개헌위원회 및 정치개혁 이행 감독위원회 설립 승인
2월 9~10일	- 시위대, 의회앞까지 진출 해산 요구 - 무바라크, 대국민 연설 통해 즉각 사퇴 거부
2월 12일	- 술레이만 부통령, 무바라크의 하야 및 군에 권력 이양 발표

자료 : 연합뉴스

○ (사태 배경) 이집트의 대규모 군중 시위 사태는 무바라크 정권의 독재 체제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

- **정치적 요인** : 무바라크 정권의 1981년부터 이어져온 30여년간 오랜 독재 체제와 통제와 억압,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의 불만 누적
 - 사다트 대통령 암살이후 발효된 비상사태법은 경찰의 권력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왔으며, 언론검열, 체포, 후보자 등록 제한 등의 조치들로 집권당이 권력을 독식
 - 이집트는 2010년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조사¹⁾에서 CSI지수가 178개국 중 98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패한 국가로 평가됨
- **경제적 요인** : 이집트는 낮은 경제성장, 높은 실업률 및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상승률로 인해 경제난이 극에 달함
 - 이집트는 인구 8,047만명(세계 16위)이지만,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기준 2,771 달러에 불과
 - 실업률은 2010년 9.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30세 이하의 젊은층이 전체 실업자의 90% 차지
 - 물가상승률은 2010년 12.8%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월 식품 가격지수는 231포인트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집트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름



자료 : World Bank, IMF



자료 : World Bank, FAO

1) 부패 인식 조사(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 0에 가까울수록 부패

II. 이집트 사태의 전개 전망

○ 향후 이집트 사태는 '점진적인 권력 이양'으로 가닥이 잡혀나갈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거나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존재

- ① **점진적 권력 이양** : 권력을 이양받은 군부와 민주화 세력이 합의에 기초하여 9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평화적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
 - 군 최고위원회는 무바라크 퇴임 선언 직후 성명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것과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협정을 지킬 것임을 천명
 - 군은 또한 새 민간 정부 선출을 위한 평화적 권력 이양을 관장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직접 통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확인
 - 따라서 이집트 정국은 개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민주적 입법 절차를 마련하고, 오늘 9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쪽으로 사태가 수습될 전망
 - 대선 후보로 아무르 무사(아랍연맹 사무총장), 슐레이만(부통령), 엘바라데이(전 IAEA 사무총장), 무함마드 탄타위(국방장관)과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음
- ② **새로운 갈등과 혼란** : 권력 이양 과정에서 계파간에 새로운 충돌이 발생하면서 합의를 통한 평화적인 민주 정부 수립에 실패할 경우, 정국은 다시 혼돈에 빠져들 가능성
 - 군부가 제시하는 정치 일정과 이양 과정에서의 민주화 세력 간에 새로운 충돌이 발생하고, 민주화 입법 합의 실패 등으로 평화적 권력 이양 실패
 - 현재 이집트에는 '무슬림 형제단'을 제외하고 30년 무바라크 체제를 대체할 만한 정치세력이 없고, 제도권 내 야당도 미성숙한 상황
 -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세력과 민주화 온건세력, 군부 등 계파간 권력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집트 정국은 새로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존재함
- ③ **군부 쿠데타** : 권력 이양이 무산되고 이집트 사태가 혼란에 빠져들 경우,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혼란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으며, 친미 정권 수립을 위해 미국은 군부 독재를 지지할 가능성 존재

Ⅲ. 이집트 사태의 파급 영향

1. 중동 정세에 파급 영향

○ (독재국가들의 민주화 도미노 현상) 이집트 사태로 인해 자극받은 주변의 독재국가들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

- 이집트와 비슷한 장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알제리, 예멘, 리비아 등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물가, 고실업 등의 경제난과 오랜 독재 체제로 인한 민주화 요구가 중첩되어 반정부 시위로 확대될 가능성 높음
- 현재 이집트 사태 이후 중동 지역의 각 국에서 반정부 또는 민주화 시위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월 3일에 예멘의 수도 사나 도심에서는 2만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완전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의 날' 시위 진행
 - 1월 30일 수단의 수도 하르툼 전역에서 30일(현지시각)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했으며, 무장한 경찰들이 강제 진압
 - 1월 22일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의 철폐를 촉구하며 시위가 발생했으며, 2월 12일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 예정
 - 리비아는 작은 인구규모와 높은 국민소득으로 민주화 시위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41년 장기 독재체제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

< 이집트 주변 국가들의 정치 체제 >



자료 :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 (왕정국가로의 사태 확산 우려) 이집트 사태가 주변국으로 점차 확대될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던 왕정국가들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왕정국가들은 독재국가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이집트 사태가 알제리, 예멘 등으로 확산될 경우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
 - 이미 요르단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사미르 리파이 요르단 총리가 사임했으며, 사우디와 바레인에서도 소규모 시위가 발생
 - 쿠웨이트 청년단체인 '다섯번째 펜스(Fifth Fence)'는 최근 경찰 고문 사건으로 시위를 계획했으나, 정부가 내무장관을 경질한 점을 감안하여 시위를 3월 8일 이후로 연기
- 특히 주요 원유 생산국가인 사우디(세계 1위 산유국)와 쿠웨이트(중동 5위 산유국)등의 국가들이 민주화 도미노에 영향 받아 정국이 불안에 빠질 경우,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오일쇼크 발생 우려

< 이집트 사태 이후 중동 지역 정세 >

구분	국가	지도자	불안요인	개혁 조치	시위발생
독재국가	예멘	알리 압둘라 살레 (32년 독재)	아랍권 최빈국 고물가, 고실업	차기 대선 포기 2013년 정권이양	○
	수단	오마르 알 바시르 (20년 독재)	식료품 물가상승 남수단 독립	남부수단 분리독립 국민투표 결과 수용	○
	알제리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12년 독재)	고물가, 고실업 정치 부패 민주화 요구	국가비상령 해제 밀가루 추가 공급	○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 (42년 독재)	아랍권최장기독재 부자세습	관세 및 세금 인하	X
왕정국가	요르단	압둘라 2세	고물가, 고실업 총리퇴진시위	새내각 구성 및 정치개혁 추진	○
	사우디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식료품 인플레이션 대학생 민주화 시위	—	○
	바레인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수니파)	시아파주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식량보조금 등 사회보장비 증액	○
	쿠웨이트	사바 알아마드 알자비르 알사바	청년단체시위 민주화 및 인권개선	급여 인상 식료품 무료배급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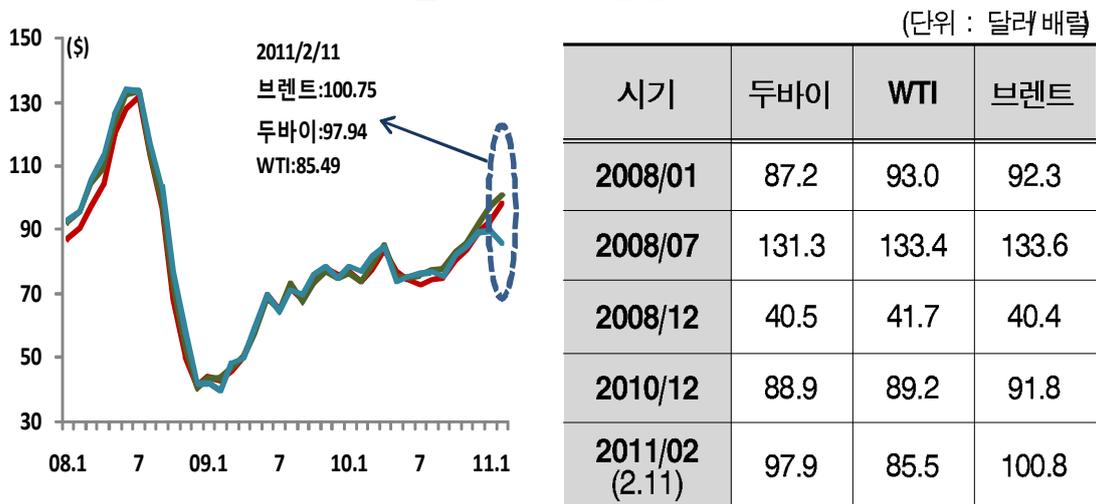
2.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에 파급 영향

1) 4차 오일쇼크 우려

○ 만약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가 주요 산유국들로까지 확산되면, 국제 유가는 110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4차 오일쇼크 발생이 우려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87.2달러(1월)에서 6개월만에 131.3달러로 약 50달러 급등
- 2010년 12월 두바이유는 89달러를 돌파하여 2011년 2월 11일 현재 97.9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지속

< 시기별 국제 유가 변동 추이 >



자료 : Petronet

- 2011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석유수급 전망에 따르면 세계석유수요는 전년 대비 140만b/d 증가하고, 對OPEC 수요는 전년대비 30만b/d 증가할 것으로 전망
 - OPEC과 EIA(美에너지정보청)등의 기관들도 2011년 석유수요가 전년대비 123만b/d, 145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신흥국 수요 증가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2011년에 원유 수급이 2010년보다 타이트해질 전망
 - 따라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커질 경우 2011년 對OPEC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에 따르는 국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시기별 원유 수급 추이와 2011년 원유 수급 전망 >

(단위 : 백만 b/d)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수요 (A)	86.0	86.2	85.0	87.7	89.1
비OPEC 공급 (B)	49.7	50.7	51.7	52.8	53.4
OPEC NGLs (C)	4.8	4.5	4.8	5.3	5.8
對 OPEC 수요 (A - B - C)	31.5	31.0	28.5	29.6	29.9
총공급 (D)	85.6	86.5	85.2	87.3	—
재고변동 (D -A)	-0.4	0.3	0.2	-0.4	—

자료 : IEA 석유시장 보고서 2009.1, 2010.1, 2011.1 참조.

-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가 걸프만 지역의 주요 산유국들로 확대될 경우 국제 유가는 11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유가 상승세와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 중동 지역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는 2008년에 이어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²⁾
 - 최근 쿠웨이트의 최고석유위원회 위원인 이마드 알 아티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집트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
 - CGES(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의 2011년 고유가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평균 109.7(브렌트유 기준)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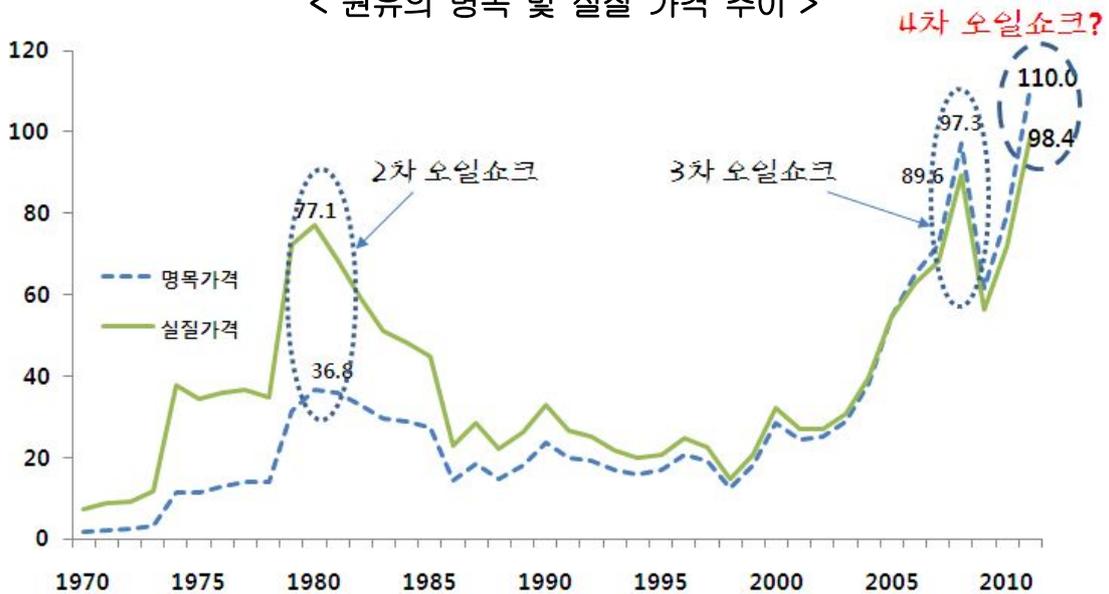
- 국제 유가가 110달러 선을 돌파하면 과거 오일쇼크 때의 실질 가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4차 오일쇼크 발생이 우려
 - 2011년 명목 유가를 110달러로 가정하고 이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가격(2005년=100)으로 환산하면 98.4달러이며, 이는 2차 오일쇼크 때의 실질 가격인 77.1달러와 3차 오일쇼크(금융위기) 때의 89.6달러를 상회함
 - 따라서 이집트 사태가 주요 산유국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정정불안 사태로

2) 1월 24일자 FT(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2011년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국제 유가는 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3) 한국석유공사, 2011년 1월 해외주요기관 유가전망 참고.

확산되어 국제 유가가 평균 110달러 선을 돌파할 경우, 4차 오일쇼크 발생이 우려됨

< 원유의 명목 및 실질 가격 추이 >



(단위 : 달러/배럴)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명목 가격	1.8	11.5	36.8	27.6	23.7	17.0	28.5	54.5	79.7	110.0
실질 가격	7.4	34.3	77.1	44.7	32.9	20.9	32.1	54.5	72.0	98.4

자료 : BP, BEA, OPEC,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07. 11. 9(통권 272호) 참조

- 주 : 1. 국제 명목 유가는 BP Historical Data(연평균 가격 기준)을 기초로 함
- 2. 실질 가격은 명목 유가를 기준으로 미국 GDP 디플레이터(2005년=100)를 이용하여 추정
- 3. 2011년 실질 가격은 2011년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1.0%사용하여 추정, IMF World Economic Outlook, Otc.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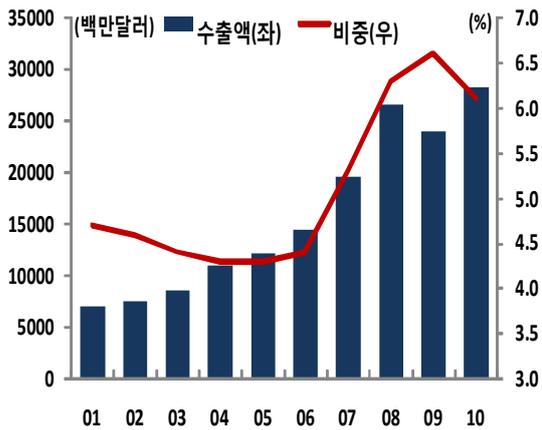
2) 국내 경제 파급 영향

○ 중동 지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될 경우 중동 지역으로의 국내 수출이 감소하고, 특히 건설업 부문의 큰 타격이 예상됨

-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5.4% 성장하여 2010년에 283.7억불로서 전체 수출액의 6.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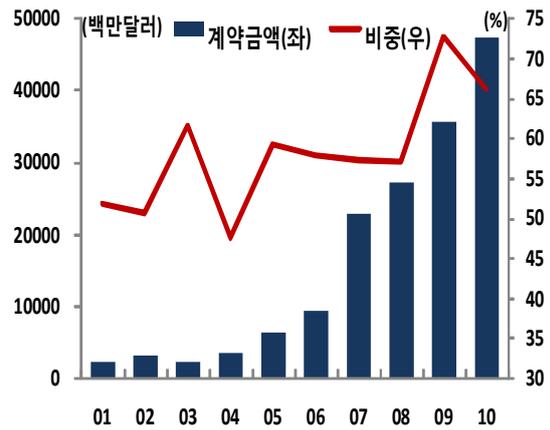
- 한편,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건설 수주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37%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2009년에는 전체 총 해외건설 수주액의 73%를 차지
- 따라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설 분야에 있어서 큰 타격이 우려됨

<중동 수출액 및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동 건설 계약 금액 및 비중>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중동 지역 위기로 인해 원유가격이 110달러를 돌파하게 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분은 약 1.26%가 될 것으로 추정

- 중동 지역 위기로 국제 유가가 110달러에 이를 경우 2010년 대비 약 30% 상승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물가는 1.26% 추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분석
-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원유 가격 상승(10%)에 따른 물가파급효과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0.42%, 생산자물가는 0.6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유 및 천연가스 10% 변동시 물가파급효과 추이>

(%)

		1990	1995	2000	2005
원유	소비자물가	0.31	0.27	0.37	0.42
	생산자물가	0.64	0.40	0.61	0.69
천연가스	소비자물가	0.03	0.07	0.18	0.20
	생산자물가	0.04	0.06	0.17	0.18

자료 : 한국은행

IV. 대응 방안

- 첫째,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을 대비하여 비상 대책 마련과 석유 비축 규모 증대 및 에너지 수급로를 다양화
 - 이집트와 주변 중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며, 제4차 오일 쇼크에 대비한 비상 대책과 에너지 비상수급책 마련
 - 선물 시장을 활용하여 석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비축 규모를 선제적으로 증대하여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
 - 중동 이외의 자원 개발 및 석유 수입로를 다양하게 확보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리스크 확산에 대비

- 둘째,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
 -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난방유와 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셋째, 에너지 절약 등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다가올 에너지난에 대비
 -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고효율 차량, 난방 및 가전제품 사용을 권장
 - 산업부문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및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넷째, 중동 지역 경기 위축에 따른 한국 수출 시장 감소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추구
 - 이집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한국의 수출 감소 우려와 세계 경기 동반 경기 회복 부진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
 - 중동 지역의 신흥국 시장 진출 등 수출 지역의 다각화를 통해 수출 감소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야함

선임연구원 최성근 (2072-6223, csk01@hri.co.kr)

연구원 김천구 (2072-6211, ck1009@hri.co.kr)